

‘자등명 법등명’이 불교의 근본

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량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물은 다 한때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절이 있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기 전에 수행이 있었습니다. 도량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도량에 사는 사람과 이 도량을 의지해서 드나드는 여러분 삶이 맑고 향기롭게 개성되어만 비로소 도량다운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한때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들이예요. 출가한 스님들은 원래 자기 집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가불자들은 자신 뿐 아니라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그 도량을 가꾸면서 보살핍니다. 표현을 달리하면 신앙심이 지극한 여러 불자들이 곧 그 도량 수호신입니다. 이런 도리를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처음에 이곳에 절에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로 여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주지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스님들과 보살님들의 노고로 이와 같은 도량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처음 장건 법회를 할 때 가난한 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절·교회가 흥청망청해서 ‘가난한 절’을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봐도 가난한 절이 결코 아닙니다. 넘치기 직전에 이르렀어요. 자칫하면 넘치게 돼요.

법회는 마땅히 법다운 모임이 돼야 합니다. 법문내용을 마음에 담아 봐야 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는 절이나 교회도 어려움을 나눠야 합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온 사람들도 여지 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는 교회나 절도 어려움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종교만 땀땀거리면 됩니까? 우리는 불사예만 매진할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불사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나라 종에 금이 가 있어도

뒤야 합니다. 종의 소리에 문제가 아니라 종에 담긴 염원이 얼마나 간절하는가입니다.

10년이던 강산도 변한다는데 김상사도 이전 안팎으로 바뀔 때가 됐습니다. 이 도량에 인연 맺은 여러분 삶이 저마다 맑고 향기롭게 변해야만 이름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재가불자들이 승가에 귀의한 것은 그 청정성 때문입니다. 청정성이 승가 생명력입니다. 스님들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세속인정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흔히 ‘나만 믿고 살라’며 신도들에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중, 믿을 거 못돼요. 부모나 형제, 저희 집도 버리고 떠나는 놈들을 어떻게 믿어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믿을 게 따르 있지 그런 소리에 속지 말라니까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 살아야 합니까?”하는 물음에 부처님은 ‘나만 믿고 살 거라’ 이런 소리 절대 하지 않았습다.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진리에요.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 “자귀의 법귀의, 자등명 법등명” 이게 근본입니다. 그 밖은 다 허상이예요. 여기에 불교 참 면목이 있습니다. 냉혹한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다른 것은 다 허상입니다.

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곳은 자기 자신, 본질인 자아, 자기 자신과 진리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 그 밖에 것은 다 허상입니다. 이 눈부신 봄날! 세로 피어난 꽃과 잎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저마다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고 견디면서 가꿔온 그 씨앗을 이 봄날에 활짝 펼쳐 보게 바랍니다. ‘봄날은 간다’는 노래도 있죠? 봄날은 갑니다. 덧없이 지나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돌아오는 꽃과 잎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듣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19일 김상사 법문



의 일상이 그만큼 열목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시간을 살리지 못한다.

끔찍한 소식이나 뉴스들을 보고 들으면 우리의식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남게 돼요. 잠재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해요. 볼 것은 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않아야 합니다.

들음 소리 인들을 소리로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입을 책도 그렇습니다. 말도 할 말 하지 않을 말을 가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어두운 소식보다 밝고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면 우리 심성이 맑고 아름다워 집니다. 올 한해 시간의 덧없음을 화두 삼아서 복된 순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십시오.

-2009년 2월 9일 김상사 법문

법정 스님 행장

〈무소유〉 법정 스님은 평생을 길들여지지 않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상상했던 <어린 왕자>였다.

스님은 1932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해 목포 유달산 자락에서 성장했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를 시작했던 스님은 전남대 상과대학 3년 수료한 뒤,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오직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1956년 통일 미래사에서 호봉 스님의 제자로 출가했다.

해인사 선원 등에서 공부했던 스님은 28세에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고 1960년대 서울 봉은사에서 운허 스님과 <불교사전> 편찬에 매진했다. 사전 편찬을 하면서 스님은 4·19, 5·16을 겪었다. 이때 함석헌, 장준하, 김동길 등과 가까이 하면서 민주수호국 민협의회와 유신철폐 개헌서명운동에 참여했다.

1970년 초반 대한불교신문 논설위원과 주필을 맡았다. 첫 예세이 <영호의 모음> 출판으로 스님의 날카로운 필력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75년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의 청년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본 스님은 반체제 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송광사로 돌아갔다.

스님은 당시의 상황을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박해를 받으니 증오심이 생겼다. ‘이래선 수행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 하고 느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출가수행자가 되었는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산에는 들어왔지만 지금도 세상일에 관심을 안가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975년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지어 20년 동안 홀로 수행자의

내생에도 출가하고픈 수행자

삶을 살았다. 홀로 있으면서도 스님은 엄격히 수행과 함께 독서를 했다. 이때 발간된 저서가 <무소유>(1976년 초판 발간)다.

1992년 스님은 불일암을 떠났다. 출판 등으로 명성이 높아져 불일암으로 많은 불자들의 방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스님은 재출가하는 마음으로 불일암을 떠나 2008년까지 강원도 산골 수류산방에서 생활했다.

1984~1987년 송광사 수련원장을, 1987~1990년에는 보조사 상연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3년 메말라가는 심성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면서 살아가자는 순수 시민운동을 주창했다. 1994년 순수 시민운동 단체 ‘맑고 향기롭게’가 만들어진다.

1987년에 김영환 여사가 법정 스님에게 요청되었던 도심의 대원각을 시주의 뜻을 밝혔지만 거절했다. 10여 년 후인 1995년 스님은 종단의 이름으로 대원각을 기증 받아 1997년 12월 김상사를 창건했다.

스님은 주지가 아닌 회주로 머물다가, 2003년 12월 회주 소임도 놓고 물러났다. 2004년 대한불교진흥원 제2회 대원상 승가부문 수상자인 법정 스님은 공식적으로 수상을 사양하기도 했다.

2009년 4월 병고 재발해 4월 19일 김상사에서 불 정기법회, 부처님오신날을 끝으로 스님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병세가 악화되면서 제주도 서귀포시에 머물렀다.

스님의 저서로는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 <오두막 편지> <서 있는 사람들> <물소리 바람소리> <일기회화> <버리고 떠나기>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홀로 사는 즐거움>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다> <맑고 향기롭게>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숫타니파타> <진리의 말씀(법구경)> <인연 이야기> 등이 있다.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 그동안 스님 이름으로 출간된 저서를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선지식을 찾아서’ ‘활한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은 쉽니다.

시간의 덧없음을 화두로...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합니다. 그만큼 복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복이 우리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복이 우리를 받쳐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복은 부처님 하나님이 가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선별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스스로 지어서 받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복 받을 마음씨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하는 말과 행동이 복을 받을만 한지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복을 짓기 어렵습니다. 어떤 대상을 통해서 복을 짓기도 하고, 감하기도 합니다.

새해 달력을 받아본지가 1달이 지났습니다. 1년에서 7분의 1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덧 없음을 느끼실 겁니다. 옛사람들은 지나가는 세월을 두고 전광석화라고 했습니다. 이런표현이 나오게 된 것도 시간의 덧없음을 체했기 때문에 나온 것일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말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시간에 대해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겨울 눈병을 앓으면서 시간에 대한 뜻을 새롭게 이해 했습니다. 한 시간 간격으로 인약을 넣으라고 처방을 받았는데 그 한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던지... 시간이 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술술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래를 쥐었을 때처럼 손가락 사이로 술술 빠져나가요. 시계를 보면서 인약을 넣다보니 하루가 훌쩍 지나가더라구요. 막상 내 몸으로 시간과 부딪혀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고요. 이런 사실 앞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남은 시간의 잔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의 덧없음을 굳이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그 시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정다운 자리를 만든 것은 시간을 살린 것이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를 가졌다면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쓰면 시간을 살리는 것이고 그토록 귀중한 시간도 무가치하게 보내면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시간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시간을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안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초부터 연쇄살인 사건으로 새해 첫머리를 열목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우리를 자신

2010년 봄

햇차 선금주문 할인행사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국내선 4층 입점
- 체다실습(전남 무안군 초의선사)
- 초의선다 최고금상 수상

문의:(061)285-0301,2

단 한번의 기회. 노동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햇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품질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세계가 인증(최고금상)한 “다성 초의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착순 선금 주문을 받으니, 착오 없이 기간 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만통(1통 100g) 주문 받습니다.

구분	우 전(첫물)	세 작 (두물)	중 작 (세물)
선금 주문 가격	35,000원	20,000원	10,000원
판매 가격	70,000원	50,000원	30,000원
선금 주문 기간	3월01일~4월10일	3월01일~4월20일	3월01일~4월30일
차 만드는 시기	4월10일~4월20일	4월21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차 발송 예정 기간	4월27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5월15일~5월30일

※ 우전은 4월10일, 세작은 4월20일, 중작은 4월30일까지 선금입금과 함께 주문을 받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 판매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입금 : 농협 63570-51-049724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팩스 : 061-285-0304
choyeeeta.co.kr/choyee.or.kr



▲초의선사 동상



▲초의선사 생가



▲초의선원



▲초선지역사박물관



▲청와대사랑채 무료시음



▲체다세업



▲한국문화특강



▲청와대사랑채 다도세업



▲특허증



▲최고금상 상품